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보도자료

배포일자	2009년 5월 7일(목) / 총 8매(분석 종합자료 포함)	
담당부서 담당자	건설경제연구실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연구원	☎ 3441-0611 ~ 2/hilee@cerik.re.kr ☎ 3441-0641/igata99@cerik.re.kr
홍보팀	이배훈 팀장 김희경 과장	☎ 3441-0835 ~ 6/bhlee@cerik.re.kr ☎ 3441-0778 ~ 9/khk@cerik.re.kr
보도일시	2009년 5월 8일(금) 조간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체감경기지수 5개월 연속 상승, 80선 회복

- 4월 CBSI, SOC 예산증액 및 조기집행 영향으로 전월대비 7.6p 상승한 80.0 기록
- 주택경기에 대한 최근의 회복 기대감도 일부 영향
- 작년 10월 사상 최저치 기록 후 5개월 연속 상승해 21개월만에 80선 회복
- 중견업체지수가 전월대비 25.2p 상승한 91.9 기록해 4월 지수 상승 주도
- 5월 전망치 87.9 기록해 현재의 체감경기 회복세는 향후 지속될 전망
- 민간공사 수주 침체 및 준공후 미분양 증가로 기준선인 100 회복하기엔 어려울듯

- 지난 5월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홍수)에 따르면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SOC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7.6p 상승한 80.0을 기록함으로써 21개월만에 80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써 지수는 2007년 7월에 80.1을 기록한 이후 21개월만에 80선을 회복함과 동시에 작년 10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월 지수 상승은 SOC 예산 증액 및 조기 집행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공공공사 수주 증가 현상이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체감경기 상승에 계속해 긍정적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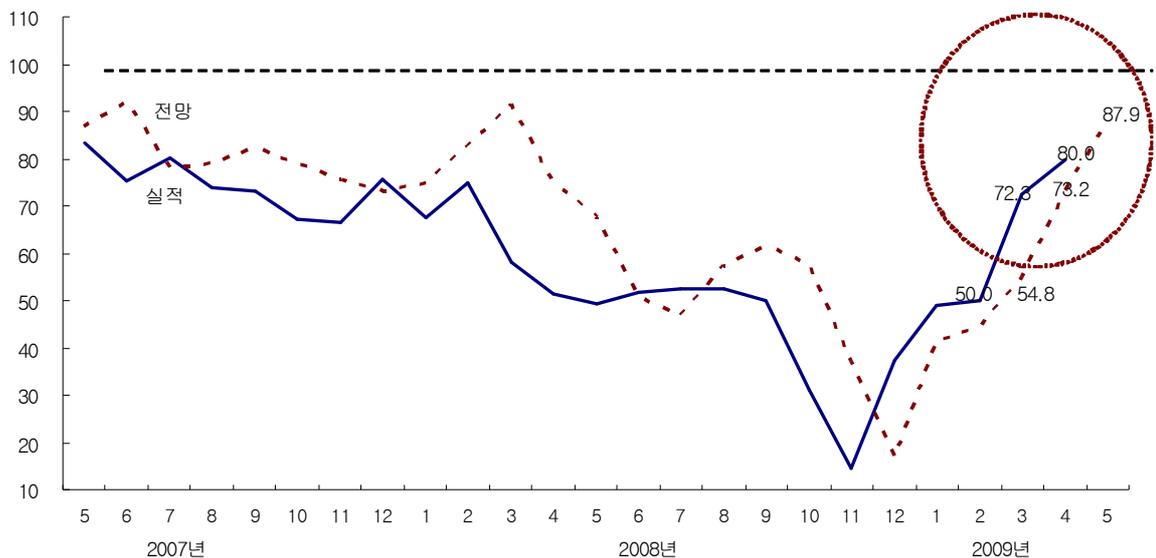
미치고 있고, 주택경기에 대한 최근의 회복 기대감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업체 규모별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중견업체가 25.2p 상승한 91.9를 기록해 4월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 대형 및 중소기업체는 전월대비 각각 1.3p, 1.9p 하락했다.
- 이홍일 연구위원은 “중견업체지수가 이처럼 큰 상승세를 보인 것은 중견업체지수가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작년 12월 제외) 중소기업체 지수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속함에 따라 회복기에는 지수 반등현상이 좀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공사물량지수는 전월대비 13.4p 상승한 93.1을 기록했는데, 공종별로는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효과로 토목물량지수가 115.9를 기록해 호조를 보인 반면, 주택 및 비주택 물량지수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작년 상반기 인상된 자재비로 인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조달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아직 상황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히, 자금조달 및 공사대금수금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9.7p, 15.8p 상승한 80.8, 90.7을 기록했는데, 자금조달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수주 증가현상이 지난 1/4분기 동안 지속되었고, 5월 지수 전망치도 87.9를 기록한 것으로 볼 때 현재의 체감경기 회복세는 향후 좀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 그러나 이홍일 연구위원은 “민간 공사 수주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준공후 미분양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 회복세를 지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경기종합 BSI 추이 >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8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1.7	52.5	52.3	50.1	31.1	14.6	37.3	48.9	50.0	72.3	80.0	73.2	87.9	
규모별	대형	90.0	80.0	66.7	66.7	44.4	7.7	46.2	53.8	58.3	84.6	83.3	76.9	100.0
	중견	34.5	46.4	50.0	44.4	17.9	17.2	35.7	42.9	40.6	66.7	91.9	69.2	102.7
	중소	26.5	27.1	38.1	37.1	30.6	19.7	28.8	50.0	50.8	64.4	62.5	73.3	57.0
지역별	서울	69.7	68.7	62.6	57.8	33.6	9.8	41.0	49.2	50.9	78.0	89.7	75.8	104.6
	지방	22.9	25.5	33.7	38.3	26.7	22.3	31.6	48.4	48.5	63.8	65.0	69.2	62.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붙임 : 2009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 결과 자료.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돼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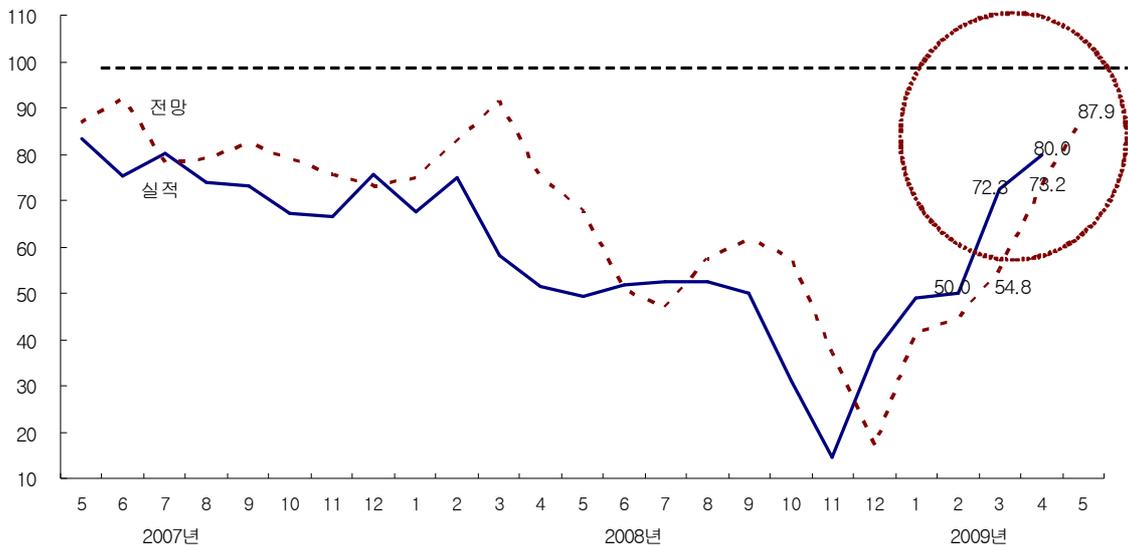
〈붙임〉

# 2009년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영향, CBSI 21개월만에 80선 회복

-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SOC 예산증액 및 조기집행 영향으로 지난 3월에 전월대비 22.3p 상승한데 이어 4월에도 7.6p 상승해 21개월만에 80선을 회복함.
  - 4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 대비 7.6p 상승한 80.0을 기록함.
  - 이로써 지수는 작년 10월에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2007년 7월에 80.1을 기록한 이후 21개월만에 지수가 80선을 회복함.
  - 4월 지수 상승은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에 따라 올 1월부터 시작된 공공공사 수주 증가현상이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시차를 두고 체감경기 상승에 계속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주택경기에 대한 최근의 회복 기대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공공공사 수주 증가현상이 지난 1/4분기동안 지속되었고, 5월 지수 전망치도 87.9를 기록한 것을 통해 볼 때 현재의 체감경기 회복세는 향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 수주가 여전히 침체되어 있고, 무엇보다 미

분양 주택 물량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비중이 차츰 증가하고 있어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 회복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소기업체가 전월대비 각각 1.3p, 1.9p 하락했으나, 중견업체가 25.2p 상승한 91.9를 기록해 4월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08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51.7	52.5	52.3	50.1	31.1	14.6	37.3	48.9	50.0	72.3	80.0	73.2	87.9	
규모별	대형	90.0	80.0	66.7	66.7	44.4	7.7	46.2	53.8	84.6	83.3	76.9	100.0	
	중견	34.5	46.4	50.0	44.4	17.9	17.2	35.7	42.9	40.6	66.7	69.2	102.7	
	중소	26.5	27.1	38.1	37.1	30.6	19.7	28.8	50.0	50.8	64.4	62.5	57.0	
지역별	서울	69.7	68.7	62.6	57.8	33.6	9.8	41.0	49.2	50.9	78.0	89.7	75.8	104.6
	지방	22.9	25.5	33.7	38.3	26.7	22.3	31.6	48.4	48.5	63.8	65.0	69.2	62.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대형업체 지수는 지난 3월에 전월대비 26.3p 상승한 84.6을 기록하여 작년 8월 (80.0) 이후 7개월만에 80선을 회복했으나, 4월 들어서는 전월대비 1.3p 하락한 83.3을 기록하여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동안의 지수 상승세가 멈춤.
- 중소기업체 지수 역시 전월대비 1.9p 감소한 62.5를 기록해 작년 11월 이후 4개월 동안의 지수 상승세가 멈춤.
- 반면, 중견업체 지수는 지난 3월에 전월대비 26.1p 상승한 66.7을 기록한데 이어, 4월에도 25.2p 상승한 91.9를 기록해 작년 11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며 4월 지수 상승을 홀로 견인함.
- 이는 중견업체 지수가 작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작년 12월 제외) 중소기업체 지수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속함에 따라 회복기에는 지수 반등현상이 좀 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89.7로 전월대비 11.7p 증가하였으며, 지방업체는 65.0로 전월대비 1.2p 증가함.
  - 서울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11.7p 증가한 89.7로 지난 2008년 2월 이후 1년 2개월만에 80선을 회복하였는데 토목공사 수주가 증가하고 자금조달 사정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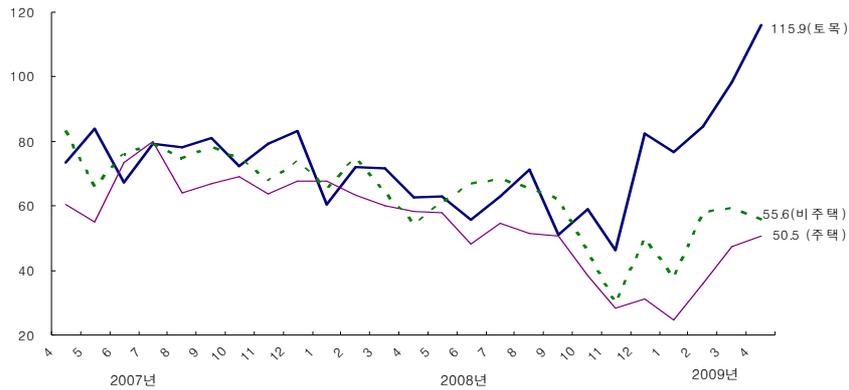
월보다 개선된 결과로 판단됨.

- 지방업체의 지수는 전월대비 1.2p 증가한 65.0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2009년 5월 건설경기 전망 지수는 87.9로 4월보다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특히 대형과 중견 업체가 경기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업체 규모별로 세부적인 건설경기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와 중견 업체의 경우 지수가 각각 100.0과 102.7로 4월보다 경기가 개선 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중소기업체는 57.0을 기록하여 경기가 더욱 악화(4월 지수보다 5.5p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 지역별로 보면 서울업체는 104.6로 지수가 개선(14.9p)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지방업체는 62.2로 지수가 4월보다 악화(-2.8p)될 것으로 전망함.

공사물량지수,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효과로  
전월대비 13.4p 상승한 93.1 기록

- 공사물량 지수 역시 전월대비 13.4p 상승한 93.1을 기록했는데, 공종별로는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효과로 토목물량 지수가 115.9를 기록해 호조를 보인 반면, 주택 및 비주택 물량 지수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토목물량 지수는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효과로 3월에 전월대비 13.7p 상승한 98.3을 기록한데 이어, 4월에도 17.6p 상승한 115.9를 기록해 2003년 12월 104.8을 기록한 이후 5년 4개월만에 100선을 회복하며 상대적으로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임.
  - 주택물량 지수는 전월대비 소폭(3.2p) 상승했지만, 지수 자체는 50.5에 불과해 여전히 물량 침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비주택물량 지수 역시 55.6을 기록하여(전월대비 3.7p 감소), 국내 경기 침체에 따라 물량 침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 보면 대형업체와 중견업체는 각각 100.0과 105.4를 기록하여 지수가 100 이상인데 반해 중소기업체의 경우 전월보다 지수가 1.2p 감소한 70.9에 그쳐 중소기업체의 물량침체가 심각함.
  - 대형업체의 경우 전월과 동일한 100.0을 기록하였는데 토목 물량지수가 158.3로 큰 호조(42.9p 증가)를 기록한 반면, 주택과 비주택 물량이 4월보다 각각 3.8p, 26.3p 감소한 50.0과 58.3을 기록함.
  - 중견업체의 경우 지수가 전월 대비 40.0p 증가한 105.4를 기록하였는데 주택과 비주택 물량지수가 각각 개선(전월대비 24.7p, 16.0p 증가)되고, 토목 물량지수가 호조(전월보다 14.3p 증가한 114.3기록)를 기록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2p 감소한 그친 70.9를 기록하였는데 중소기업체의 물량침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93.1	100.0	105.4	70.9	106.8	71.9
	전망	91.8	116.7	94.4	59.7	113.5	58.5
토목	실적	115.9	158.3	114.3	67.9	141.0	77.0
	전망	108.2	141.7	111.4	65.3	131.3	72.3
주택	실적	50.5	50.0	72.7	25.8	63.0	30.4
	전망	51.7	58.3	68.8	24.6	65.8	29.4
비주택	실적	55.6	58.3	58.3	49.3	60.4	47.9
	전망	64.5	75.0	63.9	52.8	73.2	50.5

주 : 실적은 2009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5월 예측지수임.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가 전월대비 18.2p 증가한 106.8을 기록하여 호조를 보였으나, 지방업체는 전월대비 5.7p 증가에 그친 71.9을 기록 지방업체의 침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

- 2009년 5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4월 실적치 보다 1.3p 감소한 91.8로 올해들어 가장 큰 호조를 보였던 토목공사 물량지수가 5월에 일부 조정(7.7p 감소한 108.2) 될 것으로 전망한데 따른 결과로 판단됨. 한편 주택과 비주택 물량 지수는 각각 51.7과 64.5를 기록하여 4월보다 침체정도가 소폭 개선(각각 1.2p, 8.9p 증가)될 것으로 전망함.

**인력/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 관련 상황 여전히 심각**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여전히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상황이 작년 상반기 인상된 자재비로 인해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조달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지만 아직 상황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공공공사 수주 급증에도 불구하고 턴키발주가 과거에 비해 많아 아직 본격적인 착공물량 증가로 이어지기 전이고, 민간공사 수주가 저조해 각각 116.8, 109.0을 기록하며 수급 상황이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 지수도 94.0을 기록해 인력수급 상황이 양호함에 따라 인건비 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자재비 지수가 84.7을 기록해 작년 상반기 급등한 자재비로 인해 아직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자금조달 및 공사대금수급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9.7p, 15.8p 상승한 80.8, 90.7을 기록했는데, 자금조달 상황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인력·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90.7	91.7	89.2	91.3	94.2	86.3
		전망	86.1	83.3	89.2	85.7	89.4	82.1
	자금조달	실적	80.8	83.3	75.7	83.8	85.7	73.3
		전망	80.9	83.3	80.0	79.2	85.3	75.7
인력	수급	실적	116.8	133.3	118.9	95.0	127.7	100.9
		전망	114.5	133.3	113.5	93.7	126.2	97.6
	인건비	실적	94.0	100.0	100.0	80.2	99.4	85.8
		전망	94.6	100.0	100.0	82.1	99.4	87.2
자재	수급	실적	109.0	116.7	113.5	95.0	114.9	100.9
		전망	106.0	116.7	108.1	91.1	111.9	98.0
	비용	실적	84.7	108.3	88.6	52.5	99.3	62.1
		전망	80.9	100.0	81.1	58.2	92.6	62.7

주 : 실적은 2009년 4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09년 5월 예측지수임.